

“사자를 깨워라”... ‘라이언 킹’된 오재일

삼성 감독교체 등 힘든 시기에 주장 중책 맡아 “하루하루에 최선... 강한 팀으로 태어날 것”



성적 부진에 사령탑이 바뀌면서 팀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어려운 시기, 삼성 라이온즈 오재일(36)에게 주장 완장이라는 무거운 짐이 주어졌다. 허삼영 전 감독이 자진 사퇴하면서 삼성은 박진만 감독대행 체제로 남은 시즌을 치르기로 했다.

박 감독대행이 팀에 처음으로 준변화는 새로운 캡틴을 임명하는 것이었다. 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기존 주장이었던 김현곤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한 박 감독대행은 임시 주장을 두는 대신 주장을 오재일로 아예 교체했다.

올 시즌 부진에 시달리며 타율 0.205(205

타수 42타점) 1홈런 17타점에 그친 김현곤이 심적으로 힘든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교체를 결정했다.

박 감독대행은 “김현곤이 우리 팀에서 4번째 외야수인데, 1군에 있으면서 경기 감각이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심적으로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퓨처스리그에서 경기 감각을 올릴 수 있게끔 2군으로 보냈다”며 “주장은 그라운드에 있는 선수가 맡아야 한다. 벤치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주장도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장에 오기 전 박 감독대행은 오재일을 직접 불러 주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오재일은 “2일 점심 때 감독님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장을 맡아 달라고 하시더라”며 “어려운 상황에 분위기를 바

꿔 보자고 하셨다. 감독이 말하는 것보다 고참이 말하는 것이 나와 것 같다고도 하셨다”고 전했다.

허 전 감독의 사퇴 소식에 마음이 편치 않은 오재일은 “허삼영 감독님의 사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야구를 해야 한다.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수선한 팀 분위기를 다독여야 해 부담이 적잖을 터지만 오재일은 “부담은 전혀 없다”며 어깨를 폈다. 그는 “김현곤이 많이 힘들어했다. 내가 주장을 맡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주장 경험이 처음은 아니다. 오재일은 두산 베어스 시절 1년 반 정도 주장을 했다. 2019년 잠시 주장직을 맡았고, 2020년에도 주장을 지냈다.

오재일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 주는 주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진만 감독대행이 계속 강조한 ‘활기찬 모습’을 위해 본인

이 먼저 한 발 더 뛰겠다는 마음가짐이다. 오재일은 “팀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지만 많이 지다 보니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의 표정이 굳어있고, 플레이도 위축됐다. 감독님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활기 있게 하자고 하시더라”며 “나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다. 내가 한 발 더 뛰고, 파이팅을 한 번 더 외치면 후배들도 따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출선수범하면 후배들도 따라 줄 것이라 믿는다. 오재일은 선수들이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랐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경기를 뛰는 것이든, 훈련이든, 몸관리를 전체적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하루하루 흘러보내지 않고, 선수들이 모두 매일 나아지고 얻어 가는 것이 있게끔 뛰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보 내면 올해가 끝나고, 내년 시즌을 치를 강

팀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팬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요청에도 오재일은 “올해 특히 성적이 좋지 않은 데도 팬 분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아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다.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삼성이 활기 차고, 힘있는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오재일은 삼성이 어린 선수들이 많은 만큼 이들이 동요하지 않게 하는 데에도 신경을 쓸 생각이 다. 그는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말보다는, 고참들이 한 발 더 뛰면서 모범을 보이면 분위기가 잡히고 후배들도 따라올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출선수범’을 약속했다. 스키아데일리/뉴시스



임성재 “PGA투어는 나의 꿈... LIV는 갈 생각 없다”

“현재 20위권 세계랭킹, 10위까지 올리는 게 목표”



임성재가 24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블레이크의 TPC 데어데일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3M 오픈 최종라운드 2번 홀에서 티 샷하고 있다. 임성재는 최종 합계 14언더파 270타,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뉴시스

임성재(24)가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 주겠다고 다짐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임성재가 지난 2일 밤 국내 취재진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임성재는 2021-2022 시즌을 마친 소감과 윈덤 챔피언십, 페덱스컵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출사의 뜻을 밝혔다.

임성재는 “현재 컨디션은 좋다. 지난달 3M 오픈이 끝나고 휴식을 취하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면서 잘 보냈던 것 같다. 몸이 아픈 데도 없다. 투어 챔피언십까지 가기 위해 중

요한 대회가 남아 있다. 플레이오프에서 잘해서 투어 챔피언십에 나가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임성재는 “우승을 한 번 하고 톱10에 꾸준히 들면서 좋은 시즌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메이저 대회에서 성적을 못낸 건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마스터스에서 톱10에 들고, 3M 오픈에서 공동 2위에 오르는 등 플레이오프 전까지 관망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에 걸리고 나서 대회에 많이 나가지 못했다. 등에 부상이 와서 조금 컨디션 안 좋아서 힘들었다. 하지만 빨리 복귀해서 준우승을 해서 기뻐했다”고 떠올렸다.

임성재는 “3M 오픈에 나갈 때 퍼팅 스트로크를 바꿨다. 퍼팅 연습을 매일 2시간 이상 했다. 퍼팅 스트로크 시 안쪽으로 빠져서 컨트롤을 유지하려고 했다. 일자로 치려고 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임성재는 “PGA 투어에서 티샷 정확도는 상위권에 있다. 하지만 퍼팅은 아쉬운 것 같다. 퍼트가 약하다고 생각한다. 쇼트

게임과 치핑 세이브가 좋아져서 퍼트 정확도만 올라가면 더 많은 우승 찬스가 있을 것 같고, 꾸준히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번 시즌 마지막 정규 투어인 윈덤 챔피언십 출전을 앞두고 있는 임성재는 “이번 주는 짧은 클럽, 쇼트 아이언이 중요할 것 같다. 거리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21위인 세계랭킹을 10위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임성재는 “계속 세계랭킹 20위에서 25위 사이에 있다.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목표는 10위이다. 10위까지 가려면 벽이 있는 것 같다. 메이저 대회 등 포인트가 큰 대회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성재는 “어렸을 때부터 PGA 투어를 꿈꿨다. PGA는 최고의 투어이다. 선수에게 명예가 중요하다. PGA 투어에서 열심히 해서 우승도 더 하고, 커리어를 쌓는 게 목표이다. PGA 투어에서만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산:용의 출현’ 개봉 8일 만에 누적 300만명



31일 오전 서울 시내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광고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비상선언’과 정상 다름

영화 ‘한산:용의 출현’이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한산:용의 출현’은 2일 34만718명을 추가해 누적 299만6825명을 기록한 데 이어 다음 날 곧바로 누적 300만명을 넘어섰다. 개봉 8일 만이다.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300만명 이상 본 작품은 ‘한산:용의 출현’ 포함 ‘범죄도시2’(1269만명) ‘탐간:매버릭’(718만명) ‘닥터 스트레인지:대혼돈의 멀티버스’

(588만명) 등 모두 네 편이다. ‘한산:용의 출현’은 3일 개봉하는 한재림 감독의 ‘비상선언’과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예매 관객 수는 ‘비상선언’(21만9555명)이 ‘한산:용의 출현’(15만5288명)을 앞서 있다.

이 밖에 박스오피스 순위는 2위 ‘미니언즈2’(9만868명·누적 169만명), 3위 ‘탐간:매버릭’(6만665명·누적 718만명), 4위 ‘뽀로로 극장판 드래곤캐슬 대모험’(3만8818명·누적 25만명), 5위 ‘외계+인 1부’(3만6509명·누적 143만명) 순이었다.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딜)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